

# 2022학년도 3월 고1 전국연합학력평가 정답 및 해설

## • 국어 영역 •

### 정답

1	④	2	④	3	⑤	4	①	5	②
6	⑤	7	④	8	①	9	②	10	②
11	⑤	12	①	13	①	14	②	15	③
16	⑤	17	①	18	③	19	③	20	④
21	②	22	④	23	④	24	①	25	②
26	①	27	②	28	⑤	29	④	30	④
31	①	32	④	33	③	34	⑤	35	⑤
36	③	37	②	38	②	39	③	40	⑤
41	③	42	③	43	⑤	44	③	45	①

### 해설

#### 1. [출제의도] 발표의 구성과 말하기 방식을 파악한다.

발표자는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영구 동토층이 녹을 때 대량의 온실가스가 방출되고, 이는 영구 동토층의 기온 상승을 가속화하며, 결국 지구 전체의 온난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고 있지는 않다.

**[오답풀이]** ① 발표자는 영구 동토층이라는 용어의 뜻을 설명하면서 청중이 발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② 발표자는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서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방출하는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설명하기 전에 청중이 발표에 집중하도록 ‘이것이 왜 문제가 될까요?’라고 질문을 하고 있다. ③ 발표자는 ‘이산화 탄소와 메테인은 지구 온난화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라는 것을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언급하면서 청중의 학습 경험과 발표 내용을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⑤ 발표자는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동아리 캠페인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한다고 요청하고 있다.

#### 2. [출제의도] 발표의 자료 활용 방식을 파악한다.

㉠은 영구 동토층이 녹지 않고 유지되는 지역과 녹고 있는 지역을 대조하여 영구 동토층이 녹을 때 온실가스의 방출량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보여 주기 위해 활용되었다. ㉡은 북극권의 연평균 기온 상승을 지구 전체의 연평균 기온 상승과 비교함으로써, 영구 동토층이 녹을 때 방출되는 온실가스로 인해 해당 문제가 악화될 수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오답풀이]** ① ㉠은 영구 동토층이 녹으면 온실가스가 방출된다고 했으므로 원인을 제시한 것이 아니다. ② ㉠은 영구 동토층이 생성된 과정을 제시한 자료가 아니다. ③ ㉠은 영구 동토층이 유지되는 지역과 녹고 있는 지역의 차이를 보여 주지만 녹는 속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지는 않다. ⑤ ㉠은 영구 동토층이 유지된 지역의 문제 상황을 보여 주고 있지 않다.

#### 3. [출제의도] 청중의 듣기 과정 및 반응을 파악한다.

‘학생 2’의 경우에 발표자가 발표에서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물어보아야겠다고 했다. 하지만 ‘학생 3’은 영구 동토층이 녹는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인근 학교와 지역 사회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을 뿐 발표에 활용한 정보의 출처에 대한 언급이 없다.

**[오답풀이]** ① ‘학생 1’은 발표를 통해 영구 동토층이 녹고 있다는 새로운 정보를 접한 후,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② ‘학생 2’는 발표자가 북극권에 분포한 영구 동토층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발표에 언급되지 않은 다른 지역에 대

한 궁금증을 드러내고 있다. ③ ‘학생 3’은 환경 동아리의 캠페인의 취지에 동의하면서, 영구 동토층이 녹는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하여 인근 학교와 지역 사회에 알릴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영구 동토층이 녹아서 문제가 생긴 사례를 더 찾아보겠다고 했고, ‘학생 3’은 인근 학교와 지역 사회에 알릴 방법을 생각해야겠다고 했으므로 추가적인 활동을 계획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4. [출제의도] 발화의 기능을 이해한다.

‘학생 1’의 발화 중 ㉠에서 말한 기능을 보이는 부분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답풀이]** ② ‘학생 1’은 네 번째 발화에서 발화 내용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밝히고, 대화 참여자들이 해야 할 일로 자료 수집을 제안하고 있다. ③ ‘학생 1’은 두 번째 발화에서 직전 ‘학생 3’의 발화 중 ‘고립될 수 있다는 불안을 느끼기 쉽다’는 말을 재진술하고, 포모라는 말에 대한 추가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 ④ ‘학생 1’은 세 번째 발화에서 직전 ‘학생 2’의 발화에 동의하며 ‘학생들에게 제안할 만한 내용’을 더 논의하자고 하고 있다. ⑤ ‘학생 1’은 첫 번째 발화에서 지난번 대화 내용을 환기하며 오늘 논의할 내용을 밝히고 있다.

#### 5. [출제의도] 담화의 전개를 고려하여 발화의 성격을 비교한다.

‘학생 3’은 [A]에서 포모 증후군이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고 있고 [B]에서는 포모 증후군에 대한 설명 내용 중 일부인 인간관계 맺기에 관련된 부분을 바탕으로 포모 증후군이 청소년과 관련된다는 자신의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학생 3’은 [A]에서 전문가의 관점을 소개하지 않았고 [B]에서 관점의 의의를 제시하지 않았다. ③ ‘학생 3’은 [A]에서 상대 발언의 질문에 맞게 답했으나 상대 발언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지는 않았고 [B]에서는 앞서 정리한 내용인 포모에 대하여 청소년과 관련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④ ‘학생 3’은 [A]에서 구체적 사례를 나열하지 않았고 [B]에서 사례를 분류하지 않았다. ⑤ ‘학생 3’은 [A]에서 견해가 아닌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고 [B]에서 견해를 수정했다고 보기 어렵다.

#### 6. [출제의도] 대화 내용이 글에 반영된 양상을 이해한다.

(가)의 ‘학생 3’의 세 번째 발화에 포모 증후군과 청소년 SNS 이용 시간과 관련하여 언급한 내용이 드러나고, 이는 (나)의 3문단의 청소년 포모에 대한 설명 내용에 반영되었으나, 해당 문단에 포모의 악순환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오답풀이]** ① (가)의 ‘학생 3’이 두 번째 발화와 세 번째 발화에서 포모 증후군에 대해 설명한 내용이 드러나고, 이는 (나)의 3문단에서 청소년의 포대를 중시하는 심리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함께 드러나 있다. ② (가)의 ‘학생 2’의 마지막 발화에서 SNS 사용에 대해 청소년들에게 제안하려는 내용이 드러나 있고, 이는 (나)의 4문단에서 경각심을 갖고 자기를 성찰하자는 개인적 측면과 일상 속 친구 관계 형성에 집중하자는 사회적 측면 등의 두 가지 방안으로 제시되었다. ③ (가)의 ‘학생 1’의 첫 번째 발화와 ‘학생 2’의 첫 번째 발화에서 청소년의 SNS 이용 시간과 관련한 내용이 드러나고, 이는 (나)의 1문단에서 ‘77%’, ‘3시간’, ‘19%’ 등의 수치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④ (가)의 ‘학생 3’의 마지막 발화에서 청소년기 특성에 대한 전문가 견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드러나 있고, 이는 (나)의 2문단에서 청소년기의 두 가지 특징으로 구체화되어 반영되었다.

#### 7.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문장을 작성한다.

(나)의 4문단의 친구 관계 형성에 집중하자는 내용과 어긋나지 않으며, ‘SNS 속 친구 목록의 길이’와 ‘결에서 마음을 나누는 몇몇 친구들과의 시간’이 대비를 이루며 비교의 방식으로 드러났다.

**[오답풀이]** ① 내용 대비가 드러나는 비교의 방식이 쓰였으나 4문단 내용과 어긋난다. ② ‘SNS 친구들’과 ‘현실 속 친구들’이 대비는 이루지만, 4문단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③ ‘옆자리 친구’와 ‘SNS 친구’가 대비가 이루어졌으나, 이들이 비교되지는 않았으며 4문단 내용과도 상반되는 내용이다. ⑤ 4문단의 내용과 부합하고 ‘일상생활’과 ‘SNS’가 대비는 이루어지나 비교는 드러나지 않았다.

#### 8. [출제의도] 작문 상황을 고려한 글쓰기 전략을 이해한다.

㉠ 글의 세 번째 문단에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와 같이 작품을 읽었을 때의 효용을 밝히며 책 읽기를 권유하고 있다. ㉡ 글의 첫 번째 문단에서 ‘이 책은 1947년에 발표된 작품으로 오랑이라는 도시가 페스트로 인해 봉쇄되면서 페스트와 맞서는 다양한 인간을 다룬 소설이다’와 같이 작품 내용을 개괄하여 작품의 대강을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오답풀이]** ㉢ 글의 세 번째 문단에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밝힌 작가’라는 인용이 있지만 인용한 구절은 작품의 주요 구절이 아니다. ㉣ ‘학생의 초고’에는 다른 책과의 비교에 해당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 9. [출제의도] 초고 작성 과정에서 필자가 자료를 활용한 양상을 파악한다.

ㄴ은 ‘카뮈의 노벨 문학상 수상 후 연설 중 일부’로 이 자료를 ‘예술의 필요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을 드러내는 자료라고는 볼 수 있지만, 초고를 쓴 학생이 ㄴ을 ‘작품의 창작 동기’와 연결 지어 활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ㄴ은 문학가 사건의 ‘알베르 카뮈’ 항목의 일부이다. 초고를 쓴 학생은 ㄴ을 활용하여 ‘탁월한 통찰과 진지함으로 우리 시대 인간의 정의를 밝힌 작가’와 같이 작가에 대한 평가를 제시하고 있다. ③ ㄴ은 카뮈의 노벨 문학상 수상 후 연설 중 일부이다. 초고를 쓴 학생은 ㄴ을 활용하여 ‘작가가 말한 것처럼 『페스트』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현실의 모습과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와 같이, 작가의 예술관과 연결하여 작품이 보편적인 공감을 획득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④, ⑤ ㄴ은 이 책을 펴낸 출판사의 책 소개 중 일부이다. 초고를 쓴 학생은 ㄴ을 활용하여 ‘그는 오랑에서 머물던 중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때의 경험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와 같이 카뮈가 1941년 생활했던 오랑이 작품 속 공간으로 설정된 배경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초고를 쓴 학생은 ㄴ을 활용하여 ‘이때의 경험을 작품 속에 사실적으로 담아내었다’와 같이 작가의 경험이 작품이 사실성을 갖추는 데 기여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 10. [출제의도] 고쳐쓰기를 위해 떠올린 생각을 파악한다.

<보기>의 글은 ‘학생의 초고’의 [A]를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수정한 것이다. [A]에서는 인물의 유형을 긍정적인 유형과 부정적 유형, 두 가지로만 나누어 인물 유형을 단순화하여 제시하고 있다. <보기>에서는 인물의 유형을 단순화하기보다 작품에 드러나는 다양한 인물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A]는 카뮈가 ‘공동체의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연대 의식이 필요함을 역설했다’와 같은 언급으로

마무리되고 있고, <보기>는 ‘다양한 인간 군상을 통해, 카뮈는 ‘인간은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암시한다’와 같은 언급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이는 뒤 문단에서 언급된 작가에 대한 평가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오답풀이]** ① <보기>의 내용에서는 ‘책의 단점’과 관련된 언급을 찾을 수 없다. ③ 학생이 [A]에서 인물 간 갈등의 원인을 제시했다고 보기 어렵고, <보기>의 내용이 갈등의 해소 과정을 드러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보기>에서 수정된 문단의 마무리 부분에 갈등 상황에 대처할 때 가져야 할 태도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학생이 [A]에서 <보기>로 글을 수정하면서 작품의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언급한 측면이 일부 있지만, 그 내용이 수정한 글 <보기>에서 ‘우리 사회에 필요한 바람직한 인간상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연결되어 글이 마무리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학생이 [A]에서 <보기>로 글을 수정한 방향을 책의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대신, 책에서 받은 인상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으로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11. [출제의도] 서술어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 대해 이해한다.**

‘그는 십 분 만에 선물 상자의 매듭을 풀었다.’에 쓰인 ‘풀다’의 문형 정보로 ‘【…을】’이 제시된다.

**[오답풀이]** ① ㉠-「1」의 문형 정보로 ‘【…에 …을】’이 제시된다. ② 원칙적으로 서술어는 주어를 항상 요구하므로 문형 정보에는 주어를 제외한 필수적 문장 성분에 대한 정보가 제시된다. ③ ㉠-「1」의 문형 정보로 ‘【…을】’이 제시되며, ㉠-「1」의 문형 정보로 ‘【…에 …을】’이 제시된다. ④ ㉠-「1」과 ㉠-「5」의 문형 정보로 ‘【…을】’이 제시된다.

**12. [출제의도] 문장 성분의 호응에 대해 이해한다.**

밑줄 친 문장에서 서술어와 목적어가 호응하지 않으므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목적어’이다. 국어사전에서 여기에 쓰인 ‘풀다’의 의미로 ‘액체에 다른 액체나 가루 따위를 섞다’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액체나 가루 따위에 해당하는 말’이다.

**13. [출제의도] 표준 발음법에 따른 발음을 이해한다.**

<보기 1>의 표준 발음법 제11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ㄹ’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며, 제23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ㄹ’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보기 2>의 ㉠은 [익찌]로 발음한다.

**[오답풀이]** ② 제14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이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와 결합되는 경우, 뒤엣것만을 뒤 음절 첫소리로 옮겨 발음하므로 ㉠은 [안자]로 발음한다. ③ 제11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ㄷ’은 자음 앞에서 [ㄱ]으로 발음하므로 ㉠은 [옴겨]로 발음한다. ④ 제11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ㅌ’은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하며, 제23항 규정에 따라 겹받침 ‘ㅌ’ 뒤에 연결되는 ‘ㄱ’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은 [옴꼬]로 발음한다. ⑤ 제10항 규정에 따라 ‘ㄴ’은 자음 앞에서 [ㄴ]으로 발음하며, 제23항 규정에 따라 ‘ㄴ’ 뒤에 연결되는 ‘ㅈ’은 된소리로 발음하므로 ㉠은 [갑찐]으로 발음한다.

**14. [출제의도] 단어의 품사를 파악한다.**

<보기 2>에 제시된 단어 중 ‘둘째’, ‘여섯’은 수 관형사로 쓰이지만, 수사로도 쓰일 수 있는 단어이다. <보기 2>에 제시된 단어 중 ‘하나’는 관형사로 쓰이지 않는다. 따라서 수 관형사로만 쓰이는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세’이다.

**15. [출제의도] 담화에 사용된 지시 표현을 이해한다.**

㉠은 물병 두 개를 가리키며, ㉡은 ‘물병’을 가리킨다. **[오답풀이]** ① ㉠은 ‘버스’의 상위어로서 ㉡을 가리킨

다. ② ㉢과 ㉣은 다른 단어이지만 둘 다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소를 가리킨다. ④ ㉤은 화자와 청자인 ‘지현’과 ‘경준’을 모두 포함한다. ⑤ ㉥은 뒤에 나오는 ‘민제’를 가리킨다.

**[16 ~ 20] (사회) 배영달, 「보드리야르의 『소비의 사회』 읽기」**

이 글은 사회학자 보드리야르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마르크스가 교환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파악한 것과 달리, 보드리야르는 기호가치를 경제적 가치로 파악했다. 보드리야르에 따르면 대량 생산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는 자신이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하는 기호에 대한 욕구에 따라 소비하며 이러한 욕구는 자유로운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된 욕구임을 강조한다. 보드리야르는 기호가치를 소비하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로 명명하였으며 그의 이론은 소비가 인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판적으로 성찰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16.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파악한다.**

2문단을 보면, 보드리야르는 기호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았으며 5문단을 보면, 기호 체계는 사회적 상징체계와 동일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 4문단을 보면, 소비자가 기호가치 때문에 사물을 소비한다고 보았음을 확인할 수 있어 ‘경제적 가치는 사회적 상징체계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호가치가 소비의 원인이다.’가 적절한 진술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마르크스는 사용가치가 고정적 가치이지만 교환가치는 사물의 생산 비용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유동적이라고 보았다. ② 마르크스는 소비를 생산에 종속된 현상으로 보아 소비자의 욕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③ 보드리야르는 사용가치가 경제적 가치를 결정하며, 이때의 사용가치는 욕망의 대상으로서 기호가 지니는 기능적 가치라고 설명했다. ④ 보드리야르는 개인의 욕구가 자유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강제된 욕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으며, 집단 간의 사회적 차이는 현대 소비사회에서 더욱 강화된다.

**17.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을 추론한다.**

[A]는 자본주의 사회의 소비를 기호 소비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기호 체계에 따르면 사물은 기표와 기의로 구성되며, 구체적인 사물은 기호이자 기표로 작용한다. 기표는 문자나 음성같이 감각으로 지각되는 부분으로 구체성을, 기의는 의미 내용 부분으로 추상성을 가진다.

**[오답풀이]** ② ‘특정한 사회적 지위’는 사물이 가지는 기의이며, 기표와 기의의 관계는 자의적이다. ③ 기호의 의미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기표와 기의의 관계가 아니라 기호들 사이의 관계이다. ④ 4문단의 명품 가방 소비의 예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⑤ 기호가치란 어떤 대상을 지시하는 상징의 기능적 가치이므로 구체적으로 감각되는 기표와는 관계가 없다.

**18. [출제의도] 글에 생략된 내용을 파악한다.**

4문단을 보면, 사물의 기호가치가 변화하면 사물의 경제적 가치와 사물에 대한 욕구도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또 동일 문단에서 특정 사물이 지닌 기호가치는 사회적 상징체계임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은 ③과 같은 전제에 따라 성립함을 추론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사물 자체의 유용성은 사용가치로 이는 기호 체계와 관련된 상징체계 변화와 무관하다. ② 보드리야르는 개인의 욕구를 사회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사물에 대한 욕구가 사람마다 제각기 다르다는 것은 전제로 성립할 수 없다. ④ 보드리야르는 개인의 자연 발생적인 욕구가 없다고 보았다. ⑤ 보드리야르는 오히려 의미 내용과 욕구가 연관된다고 보았다.

**19.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보기>에서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개성을 추구하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5문단을 보면,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은 자연 발생적인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사회적으로 강제된 욕구에 따르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음을 알 수 있다. 개인에게 사회가 강제하는 욕구는 소비자가 속하고 싶은 집단과 다른 집단 간의 차이를 부각해야 한다는 욕구이다. 이런 욕구는 대중매체를 통해 더 강화되는데, 대중매체를 통해 전달되는 현실은 현실 그 자체가 아니라 다른 기호와 조합될 수 있는 기호로 추상화되기 때문이다. ③에서 ‘찢어진 청바지’는 개인의 자유로운 개성 추구처럼 보이겠지만, 보드리야르는 이를 개인만의 고유한 특성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강제된 욕구로 보았다.

**[오답풀이]** ① 개인은 자신이 소속되길 바라는 집단의 속성을 통해 타인과 구별되고자 한다. ② 보드리야르는 자본주의 사회를 ‘소비사회’를 보았으며, 소비사회에서의 개성 추구는 기호가치에의 욕구로부터 비롯된다. ④ ‘차이’를 강조하는 광고문구는 개인에게 차이를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를 강제하는 대중매체의 예시이다. ⑤ 타투나 피어싱을 한 유명 연예인을 대중매체를 통해 보고 이를 따라하기 위해 돈을 지불하는 것은 대중매체가 제시하는 추상적 기호를 소비하는 것이다.

**20. [출제의도] 문맥상 의미를 파악한다.**

밑줄 친 ㉠에서 ‘지니다’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다. 선택지에서 밑줄 친 부분이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된 문장은 ④이다.

**[오답풀이]** ①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의 의미로 ‘지니다’가 사용된 예이다. ② ‘본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의 의미로 ‘지니다’가 사용된 예이다. ③ ‘어떠한 일 따위를 맡아 가지다’의 의미로 ‘지니다’가 사용된 예이다. ⑤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 두다’의 의미로 ‘지니다’가 사용된 예이다.

**[21 ~ 25] (인문) (가) 타타르키비츠, 「미학사」, (나) 비어슬리, 「미학사」**

(가)는 플라톤의,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적 관점을 바탕으로 각 철학자의 예술관을 설명한 글이다. (가)에서 플라톤은 형상이 이데아계에 존재하며 현상계는 이를 본뜬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플라톤은 예술은 현상계를 모방한 허구의 허구이며, 음유시인이 시를 연기한 것은 이를 다시 모방한 허구라고 보았다. (나)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형상은 질료에 내재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사물의 변화를 가능태와 현실태를 통해 설명하고, 예술은 사물 안에 내재한 보편자를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역사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21. [출제의도] 글의 전개 방식을 파악한다.**

(가)와 (나) 모두 특정 사상가가 예술을 평가하는 데 바탕이 된 철학적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가)의 플라톤은 이데아계에 형상이 존재한다고 보았고 현상계는 이를 본뜬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예술은 현상계를 모방하여 만든 허구의 허구로 이데아계에 있는 형상에서 두 단계나 떨어진 열등한 것이라고 보았다. (나)의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상이 사물에 내재한다고 보고 예술은 형상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시는 개별적인 사건의 기록을 다루는 역사보다 우월한 것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모두 특정 사상가의 예술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③ (가)는 플라톤이 생각하는 예술의 불완전성을 설명하고 있으나, (나)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④ (가)는 플라톤의 예술관이 지닌 장점과 단점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⑤ (가)는 플라톤의 예술관이 지닌

한계를, (나)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예술관이 지닌 의의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22. [출제의도] 글의 사실적 정보를 파악한다.

(가)의 2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예술을 감각 가능한 현상의 모방이라고 보았으므로, 그에 따르면 예술의 표현 대상은 감각 가능한 현상이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예술은 허구의 허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형상에 대한 참된 인식을 방해한다. ② 1문단에 따르면, 형상은 감각이 아닌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하다. ③ 2문단에 따르면, 예술은 형상을 모방한 현상을 다시 모방한 것이므로 열등하다. ⑤ 1문단에 따르면, 이데아계는 현상의 보편자인 형상이 존재하는 곳이다.

23.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나)의 2문단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현실태를 가능태에 형상이 실현된 어떤 상태로, 가능태를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적 힘이자 질료를 의미한다고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형상과 질료 사이의 관계는 현실태와 가능태 사이의 관계와 같지 않다.

**[오답풀이]** ① 2문단에 따르면, 형상이 항상 사물의 생성과 변화의 바탕이 되는 질료에 내재한다. ② 2문단에 따르면, 질료는 형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적 힘이다. ③ 2문단에 따르면, 형상이 질료에 실현되어 현실태가 되는 원인은 가능태 자체에 내재한다. ⑤ 2문단에 따르면, 생성·변화하는 것은 형상이 질료에 실현된 상태인 완전 현실태를 향한다.

24. [출제의도] 글을 비판적 관점으로 바라본다.

(나)의 1문단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데아계가 존재한다고 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은 생성·변화하는데, 이데아계에 있는 변하지 않는 형상을 본떠 현상계의 사물을 만들었다면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생성·변화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② (가)의 1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현상계의 모든 사물은 형상을 본떠 만들어졌다고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플라톤의 관점에서 현상계에 존재하는 사물들이 모두 제각기 다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③ (가)의 1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형상과 현상계의 사물이 서로 독립적이라고 보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의 1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현상계의 사물을 감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⑤ (가)의 1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이성을 통해 형상을 인식할 수 있다고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5.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가)의 4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용기나 절제 같은 덕성을 지닌 인간이 아닌 저급한 인간의 면모를 모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보기>의 음유시인은 오이디푸스의 덕성을 연기하는 데 주력하지 않을 것이다.

**[오답풀이]** ① (가)의 3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음유시인이 허구의 허구인 서사시나 비극을 창작하고, 이를 작품 속 등장인물의 성격에 어울리는 말투, 몸짓 같은 감각 가능한 현상으로 연기함으로써 다시 허구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보기>의 오이디푸스는 덕성을 지닌 현상 속 인물을 본떠 만든 허구의 허구이며, 그에 대한 음유시인의 연기는 이를 다시 본뜬 허구라고 볼 수 있다. ③ (가)의 3문단을 보면, 플라톤은 음유시인의 연기는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 이는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해 감각으로 파악될 수 없는 내적 특성을 드러낸다고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플라톤의 관점에서 보면,

<보기>의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 오이디푸스의 성격이 드러난다면, 감각 가능한 외적 특성을 모방하는 과정에서 감각되지 않는 내적 특성이 표현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④ (나)의 4문단을 보면, 비극시 속 이야기는 음유시인이 경험 세계의 개별자들 속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그것을 다시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결과물이라고 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보기>의 음유시인이 현상 속 인간의 개별적 모습에서 보편자를 인식해 내어, 이를 다시 오이디푸스라는 허구의 개별자로 표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⑤ (나)의 4문단을 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관객은 음유시인의 연기를 통해 삶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아니라 고통을 받는 인물의 이야기를 통해 카타르시스를 경험한다고 보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아리스토텔레스의 관점에서 보면, <보기>의 오이디푸스가 숙명에 의해 파멸당하는 것을 본 관객들은 삶의 쾌감과 카타르시스를 경험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26~30] 기술) 박기현, 「데이터 통신과 네트워크」

이 글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데이터 전송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데이터 오류를 검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포함한 데이터를 전송하고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가 있으면 재전송을 요청한다. 데이터의 오류를 검출하는 방식으로는 패리티 비트를 활용하는 패리티 방식,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하는 CRC 방식이 있다.

26. [출제의도] 글의 세부 정보를 파악한다.

4문단에 CRC 방식은 모듈로-2 연산을 사용해서 나머지를 구하고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생성 부호는 모듈로-2 연산을 활용하여 전송할 데이터를 나눌 때 사용하는 것으로 모듈로-2 연산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미리 설정되어 있다고 언급되어 있다.

**[오답풀이]** ② 2문단에 패리티 검사에는 짝수 패리티와 홀수 패리티 방식이 있고 송신기와 수신기는 모두 같은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③ 4문단에 CRC 방식에서 오류 검출 부호가 들어갈 자리에 생성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한다고 하였으므로 생성 부호의 비트 수는 오류 검출 부호의 비트 수보다 하나가 더 많다. ④ 2문단에 패리티 검사는 패리티 비트를 추가하여 데이터의 1의 개수를 짝수나 홀수로 만드는 방식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짝수 패리티를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⑤ 4문단에 CRC 방식은 복잡하지만 여러 개의 오류가 동시에 생겨도 이를 검출할 수 있어서 오류 검출 확률이 높다고 언급되어 있다.

27. [출제의도] 글의 핵심 정보를 비교하여 이해한다.

패리티 검사와 CRC 방식은 모두 송신기는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해서 이를 데이터에 포함하여 전송하고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를 검사하여 오류를 검출한다. 패리티 검사와 CRC 방식 모두 송신기는 오류 검사를 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패리티 검사는 데이터에 포함된 1의 개수가 짝수나 홀수가 되도록 오류 검출 부호인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고 CRC 방식은 모듈로-2 연산을 통해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한다. ③ 패리티 검사는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를 파악하여 오류를 검출하고 CRC 방식은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를 모듈로-2 연산을 수행하여 나머지를 구해 오류를 검출한다. ④ 패리티 검사와 CRC 방식 모두 송신기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오류 검출 부호를 생성한다. ⑤ 패리티 검사는 데이터가 같더라도 짝수 패리티나

홀수 패리티 중 어떤 방식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패리티 비트가 달라질 수 있고, CRC 방식은 미리 정해진 생성 부호에 따라 송신기의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달라질 수 있다.

28. [출제의도] 글의 세부 내용의 이유를 추론한다.

패리티 검사를 활용하면 데이터의 1의 개수가 짝수나 홀수가 되도록 패리티 비트를 생성한다. 만약 짝수 패리티를 사용하여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패리티 비트를 생성해서 전송했을 때,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어서 1의 개수가 홀수가 되어 있으면 오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하지만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발생하면 전송할 데이터와 수신한 데이터가 달라지더라도 수신한 데이터의 1의 개수는 짝수로 나타나고 패리티 비트는 전송할 데이터가 짝수일 때를 기준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데이터의 1의 개수의 짝·홀수 여부는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수신한 데이터가 정상일 때와 패리티 비트가 동일하고 송신기가 오류를 검출할 수 없다.

**[오답풀이]** ① 데이터의 오류는 전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송신기가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는 것은 전송하기 전의 일이므로 패리티 비트를 생성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 ②, ③ 전송되는 데이터에 포함되는 1의 개수는 사용하는 패리티 방식에 따라 짝수나 홀수로 나타난다. 어떤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수신한 데이터에 짝수 개의 오류가 동시에 있으면 수신기는 오류를 검출할 수 없다. ④ 패리티 비트는 송신기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생성하는 것으로 크기가 달라지지 않는다.

29. [출제의도] 글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한다.

수신한 데이터에서 ⑥도 0으로 바뀌어서 수신되었다면 두 번째 행은 짝수 개의 비트에 오류가 발생했으므로 두 번째 행의 1의 개수는 홀수가 되고, 홀수 패리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신기는 두 번째 행에 대해서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일곱 번째 열의 1의 개수가 짝수가 되었으므로 여기에 대해서는 오류가 있다고 판단할 것이다. 따라서 오류가 있는 행과 열의 교차 지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오류의 정확한 발생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일곱 번째 열에 오류가 있다는 것은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류 발생 여부는 검출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첫 번째 행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는 홀수인 3개이다. 홀수 패리티를 사용했으므로 수신기는 첫 번째 행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② 여섯 번째 열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데이터의 1의 개수는 홀수인 1개이다. 홀수 패리티를 사용했으므로 수신기는 여섯 번째 행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③ ㉔가 포함된 행과 열은 각각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이다.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의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는 각각 6개와 2개로 짝수이다. 홀수 패리티를 사용했으므로 수신기는 두 번째 행과 세 번째 열에 오류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을 것이고 행과 열의 교차 지점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 정확한 위치가 ㉔라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다. ⑤ 짝수 패리티를 활용하면 전송할 데이터를 2차원 배열로 구성한 후 각각의 행과 열에 대해 패리티 비트를 포함한 1의 개수가 짝수가 되도록 패리티 비트를 생성해야 한다. 또한 패리티 비트는 전송할 데이터를 바탕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를 기준으로 생성된다. 따라서 전송할 데이터의 열에 대한 패리티 비트는 ㉔와는 반대로 1010110으로 생성되었을 것이다.

30. [출제의도] 글의 정보와 새로운 정보를 연관 지어 이해한다.

4문단에 CRC 방식에서 오류의 판단 기준은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로 언급하고 있다.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이유는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0이기 때문이다.

**[오답풀이]** ① 4문단에 CRC 방식에서 수신기는 송신기와 동일한 생성 부호를 사용해서 모듈로-2 연산을 한다고 하였다. 수신기의 연산에서 사용한 1011은 송신기에서 사용했던 생성 부호와 동일한 것이다. ② 수신기가 수신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의 111은 송신기의 모듈로-2 연산으로 생성된 오류 검출 부호인 111을 추가한 것이다. ③ <보기>의 모듈로-2 연산을 보면 수신한 데이터의 오른쪽 끝에 생성 부호보다 하나 작은 비트 수만큼 0을 추가하지 않고 110101111을 바로 생성 부호로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CRC 방식에서는 수신기의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0으로 나오면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하고 0이 아니면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보기>의 모듈로-2 연산의 나머지가 0이 아니었다면 수신기는 수신한 데이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고 송신기에 재전송을 요청했을 것이다.

**[31~33] (현대시) (가) 김영랑, 「사개 틀린 고향의 뿔마루에」, (나) 정진규, 「따뜻한 달걀」**

**(가) 김영랑, 「사개 틀린 고향의 뿔마루에」**

이 글은 달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밤의 적막함을 표현하고 있다. 달이 아주 조금씩 떠오르면 감나무 그림자가 고향의 뿔마루에 깔리게 될 것이다. 이 시는 달이 만든 감나무 그림자와 화자의 그림자만 존재하는 정경을 그려내고 있다. 이로써 화자가 대면하게 되는 것은 달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는 외롭고 가냘픈 자신의 모습이다.

**(나) 정진규, 「따뜻한 달걀」**

이 글은 봄빛이 뚜렷해지기를 기다리며 자연과 온몸의 감각을 통해 감응하는 화자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봄비가 내리는 절기인 우수를 전후해 화자는 고향의 산 여울을 뛰어 건너는 발자국 소리와도 같은 봄의 기척을 느낀다. 우수로 인한 자연의 변화가 손에 잡힐 듯 다가오자, 화자는 따뜻한 달걀을 깨내며 개구리가 깨어나는 절기인 경칩이 다가오기를 기대하게 된다.

**31.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의 ‘사뽕’, ‘보시시’는 고요한 속에 달 그림자가 소리도 없이 조금씩 이동하는 모습을 강조한다. ‘보시시’는 ‘살포시’와 비슷한 말로 ‘포근하게 살며시’의 뜻이다. (나)의 ‘가만가만’은 새끼발가락 하나를 조심스레 쓰다듬듯 조금씩 다가오는 봄기운을 느끼는 화자의 조심스러운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② (가)와 (나) 모두 원경과 근경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는다. ③ (가)에서 ‘벗’은 화자의 외로운 그림자를, (나)에서 ‘그’는 봄기운을 빚낸 것으로, (가)와 (나) 모두 청자가 명시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다. ④ (가)에서 달 그림자가 ‘깔리우면’은 가정을 나타내는 진솔로, ‘이 밤 읊기는 발짓’이 들릴 것만 같다는 표현과 호응하면서, 달이 떠오르기를 바라는 화자의 기대를 드러낸다. 현실극복의 의지와 관련된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나)에서 가정의 진술을 활용했다고 보기 어렵다. ⑤ (가)는 ‘들러오리라’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하여, 떠오를 달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며 시적 여운을 형성하고 있다. (나)는 추측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시상을 종결했다고 볼 수 없다.

**32. [출제의도] 시어의 의미를 이해한다.**

(가)에서 뿔마루에 앉은 화자는 ‘말없이/몸짓 없이’ 조용한 가운데 달이 떠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으며, 자신의 본심과도 같은 ‘내 그림자’를 ‘외론 벗’이라 표현하며 고독감을 표출하고 있다. 따라서 ‘뿔마루’는 고독하고 적막한 상황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나)의 ‘산 여울’은 봄빛이 깊어지며 찰박대는 소리가 나고, 우수를 지나 경칩으로 이어지는 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생동하는 청량한 기운이 형상화되는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오랜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일상적 삶의 공간은 (가)의 ‘사개 틀린 고향의 뿔마루’이다. ② (가)와 (나)의 화자는 모두 자연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으며, 현실을 관조한다고 볼 수 없다. ③ (가)에서는 달이 ‘떠오를’ 것이라는 점에서 상승적 이미지가 나타나지만, (나)에서는 대상의 하강하는 이미지가 나타나지 않는다. ⑤ (가)에는 ‘아직’ 떠오르지 않은 달이 ‘이제’ 떠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타나 있으며, 지나온 삶에 대한 그리움은 나타나지 않는다.

**33. [출제의도] 외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가)와 (나)의 화자는 자연의 순환적 질서가 나타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질서가 지연되는 데 대한 조바심은 보이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의 화자는 ‘아무런 생각 없이/뜻 없이’ 그리고 ‘말없이/몸짓 없이’ 앉아 움직임과 소리를 자제하며 달이 떠오르는 데만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② ‘그’의 ‘찰박대’는 소리를 듣다가 ‘그 새끼발가락’을 만지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봄빛이 뚜렷해졌음을 드러낸다. ④ (가)에서는 달을 마치 ‘발짓’을 하는 것처럼, (나)에서는 봄빛이 뚜렷해지는 것을 ‘진솔 속 곳을 갈아입고/그가 왔다’라고 자연을 행위의 주체로 제시하고 있다. ⑤ (가)의 화자는 달이 만든 ‘내 그림자’와 ‘벗’처럼 ‘서로 맞대고 있’고자 한다는 점에서 자연과 감응한다고 볼 수 있다. (나)의 화자는 ‘그’를 위해 집어든 ‘달걀’에서 따뜻한 온기를 느끼고 ‘경칩이 멀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데서 미리 절기를 예감하며 자연과 교감한다고 볼 수 있다.

**[34~37] (갈래 복합) (가) 송순, 「면앙정가」, (나) 백석, 「가재미·나귀」**

**(가) 송순, 「면앙정가」**

이 글은 송순이 고향인 전남 담양에 내려와 면앙정을 짓고 살면서 창작한 것으로,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삶의 즐거움을 노래한 가사이다. 면앙정이 위치한 제월봉의 근원과 형세를 노래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계절에 따른 면앙정의 아름다운 모습을 묘사하고, 마지막으로 강호에서의 풍류 생활과 호연지기를 드러냈다. 지문으로 제시한 부분은 계절의 변화에 따른 정경을 묘사하면서 자연 속에서 풍류를 누리는 삶에 대한 화자의 만족감이 나타난 부분이다.

**(나) 백석, 「가재미·나귀」**

이 글은 백석이 함흥으로 이주한 이후 1936년 9월 신문사의 기획한 ‘나의 관심사’에 발표한 수필이다. 새로운 거처에서 생긴 일상의 관심사 두 가지를 통해 그곳 생활의 정취를 전하며, 이를 통해 일상의 작고 평범한 존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4. [출제의도] 두 작품의 표현상 공통점을 파악한다.**

(가)는 ‘늑음’, ‘누렇게 익은 벼’, ‘빙설’ 등의 사물을 통해 각각 여름, 가을, 겨울의 자연 풍경을, (나)는 ‘눈’을 통해 산봉우리에 눈이 덮인 겨울의 자연 풍경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가)는 ‘누렇게’, (나)는 ‘빨간’, ‘시허연’ 등과 같이 색채어가 활용된 부분이 있으나 이것을 통해 사물의 역동성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다. ② (가)는 ‘없을쏘냐’, ‘불었으랴’ 등과 같이 의문의 형식을 사용한 표현을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를 통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나)는 말을 건네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았다. ③ (가)는 ‘산빛이 금수로다’, ‘간 데마다 승경이로다’ 등의 영탄적 표현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으나, (나)에는 영탄적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다. ④ (가)와 (나) 모두 주변 사물을 제시

한 부분은 있으나 이를 연쇄적 표현을 통해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35.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파악한다.**

‘나귀’를 구하기 위해 ‘소장 마장’에도 가보고, 다른 사람에게 수소문도 해봤지만 실패한 과정이 서술되어 있으나 체념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으며, 실패한 경험에도 불구하고 ‘좀더 이놈을 구해보고 있다’는 진술을 통해 나귀를 구하는 것을 단념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오답풀이]** ① 어부의 피리 소리를 듣고 흘러가는 달을 따라 불며 간다고 표현한 것은, 청각적 경험을 통해 떠올린 장면을 묘사하여 인간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상황을 보여 준다. ② ‘아침’과 ‘저녁’, ‘오늘’과 ‘내일’ 등 시간을 표현한 시어를 대응시켜 자연을 감상하느라 바쁜 현재 상황이 이후로도 이어질 것임을 드러내었다. ③ 당나라 시인 이백과 비교하며 ‘강산풍월’을 거느리고 ‘호탕한’ 풍류를 즐기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표출하였다. ④ ‘가재미’를 구할 수 있는 ‘음력 팔월 초상’이 되어 ‘흰발’에 ‘고추장’과 함께 ‘가재미’를 먹게 된다면 ‘아침저녁 기뻐하게’ 될 것이라 말하며 기대하는 일이 실현되었을 때 느낄 심정을 표출하였다.

**36. [출제의도] 외적 준거에 의거하여 작품을 감상한다.**

‘번거로운 마음’은 화자가 자연에서의 삶을 즐기느라 바쁘고 흥겨운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버릴 일이 전혀 없다’고 말한 것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니는 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을 드러낸 표현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떠나는 ‘인간 세상’의 일상을 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화자가 피꼬리가 흥을 이기지 못해 교태를 부리며 운다고 말한 것은 아름다운 자연 풍경을 감상하며 흥겨움을 느끼는 자신과 피꼬리 간의 동일성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② 화자가 ‘설 틈 없다’고 말한 것은 자신이 체험하는 모든 곳을 다 ‘승경’이라고 인식했기 때문이며, 이는 자연의 다채로운 풍광을 감상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로 이어지고 있다. ④ 새로운 거처로 이주하여 ‘가재미’를 즐겨 먹게 된 것을 ‘동해 가까운 거리로 와서 나는 가재미와 가장 친하다’라고 표현하고, ‘가재미’를 ‘가난하고 쓸쓸한’ 삶 속에서 ‘한없이 착하고 정다운’ 존재라고 서술한 것을 통해 ‘가재미’를 소중히 여기는 글쓴이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⑤ ‘그래도 나는 그 처량한 당나귀가 좋’다고 언급한 것을 통해 일상의 작은 존재인 ‘당나귀’에 대한 글쓴이의 우호적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37.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을 파악한다.**

(가)에서 화자는 때마침 익은 술을 베풀고 함께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악기도 연주하며 극도의 흥취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므로 ㉠는 화자가 느끼는 흥을 심화한다고 볼 수 있다. (나)에서 글쓴이는 ‘H’에게도 ‘가재미’를 보내어 함께 나누어 먹으려 하고 있으므로 ㉡는 글쓴이가 ‘가재미’를 먹으며 느끼는 기쁨을 확장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다.

**[오답풀이]** ① ㉣를 통해 화자가 근심과 시름을 떨쳐내고 ‘취흥’을 즐기고 있으므로 화자에게 심리적 위안을 준다고 볼 수 있으나, ㉡는 글쓴이의 기쁨을 확장하는 기능을 하므로 고독감을 느끼게 한다고 볼 수 없다. ③ ㉠는 자연 속에서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만족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으나, ㉡는 글쓴이가 현실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매개체라고 볼 수 없다. ④ ㉡는 화자의 풍류 지향적 태도와 관련이 있으므로 화자에게 삶의 목표를 일깨워 준다고 볼 수 있으나, ㉡는 글쓴이의 심경 변화의 계기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는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태도를 드



러내므로 화자에게 이상적 세계를 떠올리게 하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으나, ⑤는 윤리적 삶의 태도와는 관련이 없다.

**[38 ~ 41] (현대소설) 이문구, 「산 너머 남촌」**

이 작품은 1980년대 서울 근교 농촌을 배경으로 자본주의적 근대화 과정 속에서 변화하는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인식을 그리고 있다. 농촌의 잡다한 세태를 통해, 농민들이 보고 겪은 농촌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작가의 농촌 경험이 반영되어 있어, 농촌과 농민의 삶이 사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드러나 있다.

**38. [출제의도] 서술상 특징을 이해한다.**

서술자는 권중만과 영두의 대화를 영두의 관점에서 전달하고 있으며, 영두의 내면 역시 영두의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권중만과 영두의 대화, 영두의 심리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 장면이 빈번하게 전환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사건의 전개가 긴박하다고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③ 권중만과 영두의 대화와 함께 영두가 과거 일에 대해 회상하는 내용이 서술이 서술되어 있으나, 별개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④ 권중만과 영두 사이의 대화가 제시되어 있으나, 사건의 비현실적인 면모가 드러난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⑤ 권중만이나 영두의 표정, 영두의 내면 심리가 나타나 있으나,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39. [출제의도] 인물의 발화를 이해한다.**

[A]에서 권중만은 ‘아파트 사람들’이 채소에 묻은 흙에 대해 가진 선입견을 들어, 자신이 영두에게 ‘놀랜 흙을 묻’히는 일을 요구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B]에서 영두는 권중만의 말에 따르면 일어났어야 할 일이 실제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점을 논리적 한계로 지적하며 권중만의 말이 타당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권중만은 자신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지 않다. [B]에서 영두는 권중만에게 친밀감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② [A]에서 권중만은 사례를 들며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이 영두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된 것은 아니다. [B]에서 영두는 권중만의 말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권중만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④ [A]에서 영두는 권중만의 말이 적절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권중만에게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B]에서 권중만은 ‘아파트 사람들’과 관련한 사례를 들고 있으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 변명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⑤ [A]에서 영두는 권중만의 생각에 대해 공감을 드러내거나 조언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B]에서 권중만은 당황한 모습을 드러내거나 영두에게 사과하고 있지 않다.

**40. [출제의도] 소재의 서사적 기능을 이해한다.**

권중만이 ‘만 원’을 제안하며 채소에 ‘놀랜흙을 묻혀 놓’는 작업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영두는 ‘뜬던 중에 것처럼 욕된 말’이 없다고 느끼며, ‘성질이 나서 견딜 수가 없었’다고 반응하였다. 그리고 권중만이 ‘얼굴을 붉’힐 정도로, 권중만의 말에 대해 비판하였다.

**[오답풀이]** ① 권중만이 ‘만 원’을 제안하며 요구한 일로 인해 권중만과 영두 사이에는 긴장감이 조성되었으므로, 갈등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② 권중만이 ‘만 원’을 제안하며 요구한 일을 조언으로 보기 어려우며, 영두가 권중만의 제안을 수용하지도 않았다. ③ 권중만이 ‘만 원’을 제안하며 요구한 일에 대해 영두는 ‘뜬던 중에 것처럼 욕된 말’이 없다고 느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④ 권중만이 ‘만 원’을 제안하며 요구한 일과 관련하여 영두가 권중만에게

양보를 요구한 것은 없다.

**41. [출제의도] 준거에 따라 작품을 감상한다.**

영두가 ‘밭떼기 장수’를 ‘미더운 물주요 필요악’ 이상의 불가결한 존재’로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적 이익 창출의 시각에서 농사를 바라보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렇지만 이를 영두가 다른 농민들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모습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풀이]** ① 농민들이 권중만을 보고 ‘채소를 돈거리로 같이 시작’하는 상황은, 경제적 이익 창출을 위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음을 보여 준다. ② 농민인 영두가 ‘밭떼기 전문 채소 장수’인 권중만과 ‘국내 수요’와 ‘대일 수출’ 등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습은, 농민들이 농산물의 유통과 판매까지 감안하게 되었음을 보여 준다. ④ 영두가 권중만에게 ‘자칫 못 먹을 것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으로 취급받지 않’으려 하는 것은, 농산물은 사람들이 먹게 될 먹거리를 생산하는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⑤ 영두가 ‘불품이 없는 것’이 오히려 ‘구수한 맛이 더하던 이치’에도 불구하고 상품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는 것은, 농사에 대한 가치관에 따르기 어려운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42 ~ 45] (고전 소설) 작가 미상, 「춘향전」**

이 소설은 춘향과 이 도령의 만남과 이별, 그리고 재회라는 기본 서사 속에 황룡묘 모티프를 활용하여 두 인물의 사랑의 성취를 제시한 ‘이교본 춘향전’이다. 제시된 부분은 춘향의 옥중 생활과 이 도령의 과거 급제를 다루고 있는 장면이다. 이 소설은 ‘황룡묘’의 주인공인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과의 만남을 다룬 이본들과 달리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춘향의 전생사와 미래사를 들려주며 정절을 격려하는 내용이 담긴 작품이다. 이 소설에서는 신관 사또의 수청을 거절하여 옥에 갇힌 춘향이 꿈속에서 미래에 관한 예언을 듣고 나서도 꿈에서 전해 들은 이야기를 신뢰하지 않고 비극적 상황에 몰입하는 내용이 나온다. 독자는 작중 인물인 춘향이 꿈을 꾸고 난 후에 보이는 반응을 바탕으로 이후 내용을 예상하기보다는 꿈속 예언이 실현되는 방향으로 서사가 진행될 것이라는 기대를 하며 이후에 이어질 내용을 읽게 된다는 점에서 흥미를 자아내는 서사이다.

**42.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인물을 이해한다.**

[A]에서는 춘향 어미가 춘향이 비극적 상황에 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춘향에게 ‘이 한 몸 의탁코자 하엿’다고 말하는 모습을 통해, 춘향 어미가 춘향의 고난이 야기할 앞으로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B]에서는 칼을 쓴 춘향에게 음식을 권하는 향단의 모습에서 향단이 춘향의 현재 몸 상태를 염려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풀이]** ① [A]에서 춘향 어미가 ‘신관 사또는 사람 죽이러 왔’냐는 모습에서 춘향 어미가 신관 사또를 비난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B]에서는 향단이 신관 사또를 옹호하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 ② [A]에서 춘향 어미가 ‘기생이라 하는 것이 수절이 다 무엇이나’라고 묻는 모습에서 춘향의 수절에 대해 만류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B]에서 향단이 춘향에게 무엇인가를 재촉하거나 춘향의 수절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부분은 찾을 수 없다. ④ [A]에서 춘향 어미는 삼문간에서 춘향을 보고 격앙된 모습을 보인다. 향단이 춘향 어미를 진정시키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는다. [B]에서 향단은 옥에 갇힌 춘향이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음식을 건넬 뿐이다. ⑤ [A]에서 도련님의 약속을 언급하는 것은 향단이다. 춘향의 어미가 도련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내용은 드러나 있지 않다. [B]에서는 향단이 옥에 갇힌 춘향을 걱정하고 있다.

**43.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한다.**

여러 ‘죽은 귀신’이 ‘처량히 슬피 울며’ ‘달려드’는 것을 보고 ‘처량하고 무서워라’라고 한 부분에서 연민의 감정이 일부 드러난다. 하지만 앞서 서술된 ‘죽은 귀신’에 대한 묘사로 보아 그들이 춘향 자기 자신과 같이 억울한 처지에 놓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벼룩 빈대 ~ 번개는 번쩍번쩍’에서 공간의 특징이 열거됨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웬일인고’에서 비참한 처지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② ‘도깨비’, ‘온갖 귀신’에서 비현실적 존재를 확인할 수 있고, ‘무서워’라고 말하는 모습에서 춘향이 두려움을 느낌을 확인할 수 있다. ③ ‘동방의 귀뚜라미 소리’, ‘울고 가는 기러기’는 청각적 경험을 자극하는 자연물이며, 춘향이 ‘나의 근심 자아낸다’고 말하는 내용에서 춘향의 근심을 확인할 수 있다. ④ ‘이것을 먹고 살면 무엇할고’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이것이 웬일인고’에서는 춘향의 신세 한탄을 확인할 수 있다.

**44. [출제의도] 작품 속 모티프를 고려하여 서사 구조를 파악한다.**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춘향에게 ‘바빠 들라’는 말은 춘향을 환대하는 말이다. 이는 춘향이 자신의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춘향이 현실 속에서 꿈을 꾸어 황룡묘에 도착하므로 잠을 통해 꿈과 현실을 연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② 여동이 부친 부채가 일으킨 바람에 의해 비현실적 방법으로 춘향이 순식간에 공간을 이동하는 것은 꿈속 공간이 현실을 초월한 곳임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적절하다. ④ 전생의 운화 부인 시녀는 현생의 춘향에 대응되고, 전생의 장경성은 현생의 이 도령에 대응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현생에서의 서사가 전생으로 확장되도록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⑤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은 정절의 표상인 인물로 춘향에게 정절을 지켜나갈 것을 당부하고 있는데 이는 춘향이 정절을 지켜나갈 인물임을 드러내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45. [출제의도] 작품 속 모티프를 고려한 독자의 반응을 이해한다.**

이 작품에서 춘향은 옥에 갇혀 꿈을 꾸고 황룡묘에 가서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을 만난다. 이때 춘향은 미래의 긍정적인 전망이 담긴 예언을 듣게 되지만,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예언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고 만다. 그런데 독자는 황룡묘 모티프에 영향을 받아, 춘향의 앞날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하게 된다. 특히, 아황 부인과 여영 부인이 장경성과의 재회에 대해 예언한 내용을 통해서 독자는 재회의 대상으로서의 이 도령과 장경성이 동일함을 짐작하고 읽게 된다. 따라서 춘향은 ‘내가 죽을 꿈이 로다’라고 말하지만, 독자는 이 도령이 장원 급제한 내용에 주목하게 되고, 그 이후에 춘향과 이 도령이 재회할 것을 예상하게 된다.

**[오답풀이]** ② 독자는 춘향이 자문하는 모습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춘향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요소를 찾을 것이다. ③ 꿈에서 깨어난 춘향이 허무함을 느낄 수 있으나, 독자는 예언에 주목하므로 춘향의 허무함을 느끼기보다는 춘향에게 일어날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할 것이다. ④ 독자는 춘향의 부정적 반응을 그대로 믿지 않게 되므로, 춘향의 고난이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을 것이다. ⑤ 달나라 구경을 이루지 못한 춘향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으나, 독자는 전생과 관련된 예언에 주목할 뿐이다.